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4 권 37 호



5. 율준 대세 / 성녀 김아기 아가다(1787 생 1839. 5. 24 참수)
 성인은 1836년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대세를 받고 순교하였다.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한국어 성체조배: 매월 둘째 수요일 한국어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제 1 독서		에제 20,7-9	▶제 2 독서	로마 13,8-10
화답송			복음환호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복음	마태 18,15-20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월 7일	전 니콜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9월 14일	유 요한	이 요한	허 벤자민
9월 21일	이 클라라	이 바오로	허 벤자민
9월 28일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성인복사
10월 5일	전 니콜	이 요한	허 벤자민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8월 31일	\$ 360.00	-	\$300.00

*2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9월은 순교자 성월 : 주일 미사 시작 전 기도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주일미사 전에 “한국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를 바칠 예정입니다. 미사 시작 10분전까지 오셔서 같이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한국어 평일미사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체조배 : 매월 둘째 수요일 저녁미사 후

매월 둘째 수요일, 7시 30분 저녁미사 후에 한국어 성체조배 및 성체강복이 있습니다.

성서통독: 매 주 '주일 미사 후 10분씩'

6월 22일부터 주일미사후 10분씩 '사도행전' 을 다함께 봉독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펴낸 성서를 지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필서: 1-8 장, 9-16 장, 17-28 장 세부분으로 나눠서 구역장님께 제출.

공동체 소식

건진교리 교육 관례

7월 11일 부터 한인공동체 건진교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 마르코 형제, 홍 아네스 자매님께서 교육에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건진성사를 잘 준비하실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임원회의: 9/9 (화) 오후 8시 산클레멘테 성당 사제관

한국어 성체조배: 9/10 (수) 한국어 '7시 30분 저녁미사' 후

한인공동체 '교적 확인 및 업데이트'

본당 한인공동체 교적 확인 및 정리 작업하고자 하오니, 나눠드린 서식을 정확히 기재하시어 이 그레이스 (재무부장) 자매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증빙서류: 이전 성당에서 교적을 전출해 오시거나, 세례성사, 건진성사, 혼배성사의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제 2회 산클레멘테 자선기금 모금 골프대회: 9/7 (오늘)

장소: Rio Bravo Country Club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가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참여 및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Fresno 교구 Diocesan Congress & Youth Day: 10/11-10/12

장소: Visalia Convention Center (303 E Acequia Ave, Visalia, 93291).

Congress: 10월 11일(토) 오전 8시- 오후 5:15분.

<한국어 워크샵 프로그램 10월 11일(토)>

12:45 pm-2pm. "New Evangelization for Korean American Catholics (한국어)". 강사: 스티브 김 신부님.

2:30 pm - 3:45 pm. "나눔의 영성". 강사: 캐시 조.

상세정보: www.diocesesoffresno.org/congress

등록비: \$40 (9월 3일-10월 1일). 문의: 공동체 임원.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9월 8일(화)은 한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추석)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명절에도 가족, 친지, 공동체 형제자매 분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 한국 천주교회의 103 위 성인 】

성 이호영 베드로

축일: 9월 20일. 신분: 회장, 순교자. 활동연도: 1802-1838년

성 이호영 베드로(Petrus)는 경기도 이천 땅 구월에서 가난한 시골 양반의 자제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친을 여원 후 모친과 누이 아가타(Agatha)와 함께 서울 한강 북쪽 문막이라는 곳에서 살 때 유방제(劉方濟, 파치피코) 신부를 만났다. 신부는 그의 충실성을 보고 아직 젊은 그를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말과 행동에서 절제가 있었고, 여러 교우와 외교인을 항상 권면하여 자기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던 중, 하루는 과거 보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왕의 충신과 아는 사이가 되어 급제를 하게 된 꿈을 생각하며 순교를 예감하였다고 한다.

1835년 2월 어느 날, 베드로와 그의 누이 아가타는 불잡혀 옥에 갇혔다. 그는 수없이 심문과 고문을 받았으나 끝까지 신앙을 포기 하지 않았다. 재판관이 “만일 내가 말로 천주를 배반하기 싫거든 커다란 글자 하나를 써 줄 터이니 거기에다 점 하나만 찍든지 침을 뱉든지 하면 배교하는 표로 인정하고 너를 놓아 주겠다” 고 하였으나, 그는 “만 번 죽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하였다.

그래서 이호영 베드로는 사교를 믿는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때 그는 “나는 칼 밑에 치명하기가 원이었다. 그러나 천주의 명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고 하였다. 4년 동안이나 옥중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갇은 고문과 병고를 잘 참아냈고, 항상 대제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양순한 표양이 외면에 드러나 옥졸들조차 칭찬하였다고 한다. 이윽고 그는 옥중에서 병으로 순교하니, 때는 1838년 11월 25일, 그의 나이는 36세 때였다. 그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성 김 아기 아가타

축일: 9월 20일. 신분: 과부, 순교자. 활동연도: 1790-1839년

성녀 김아기 아가타는 외교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미신을 몹시 섬기던 어느 외교인에게 출가하여 오랫동안 미신을 숭상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그녀의 친정 언니가 신자였으므로 제사의 무익함과 우상숭배의 헛됨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남편의 꾸지람을 무릅쓰고 집에 꾸며 놓았던 우상과 그림을 불에 태워버렸다. 그러나 그녀가 워낙 우둔하여 비록 신앙과 열심은 지극하였지만, 끝끝내 아침과 저녁기도의 기도문과 12 단조차 외우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836년 10월에 아가타는 아직 세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포졸들에게 잡혀 투옥되었다. 포장이 “네가 천주교를 믿는다니 사실이냐?” 라고 묻자, 김 아가타는 “저는 예수 마리아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만약 너를 형벌하여 죽게까지 된다면 하여도 예수 마리아를 배반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녀는 혹독한 형벌을 당했으나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으므로 포장은 그녀를 형조 옥으로 이송하였다.

김 아가타가 들어가자 신자들은 웃으며 “예수 마리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타가 왔군.” 하고 말하며, 그녀의 굳은 믿음을 칭찬한 후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다. 3년간의 이러한 옥중생활 속에서 수많은 형벌과 고통을 받았지만 김 아가타는 이 모든 것을 달갑게 받고 1839년 5월 24일에 서소문 밖에서 53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그녀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출처: GoodNews 가톨릭정보, <http://info.catholic.or.kr/saint/view.asp>]